



# 진통 끝 WBC 코치진 구성

우여곡절 끝에 김성한 전 KIA 감독을 수석코치로 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코칭스태프가 꾸러졌다.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WBC 야구 국가대표팀 코치진을 발표했다. 수석코치에 김성한 전 KIA 감독이 선임됐고, 이순철 전 LG 감독이 타격코치, 양상문 롯데 2군 감독이 투수코치, 류중일·강승우(이상 삼삼) 코치가 각각 3루 베이스와 배터리 및 불펜 감독을 맡았다. 두산 김민호 코치는 1루 베이스 코치로 확정됐다.

**수석코치 - 김성한씨**  
**타격코치 - 이순철씨**  
**투수코치 - 양상문씨**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김인식 WBC 한국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 등을 지켜볼 때 공격은 제1회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투수력은 튼튼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로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이끈 김경문 두산 감독과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룬 김성근 SK 감독의 대표팀 감독 고사로 진통을 겪었던 제2회 WBC호가 개막 100일(내년 3월5일 도쿄돔)을 앞두고 뒤늦게 출범하게 됐다.

KBO는 지난 5일 김경문·김성근 감독의 대표팀 고사에 따라 기술위원회를 열고 2006년 WBC 4강 기적을 일궈낸 김인식 감독을 대표팀 사령관으로 재추대했다. 고심 끝에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2006년 당시 호흡을 맞췄던 김재박(LG), 조병현(KIA) 감독을 비롯해 김시진(허어로즈) 감독의 코치 기용을 KBO에 요구했지만 이들이 팀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KBO조차 ‘장원삼 현금 트레이드’ 파문 등으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WBC 대표팀 공식 출범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김인식 감독이 코치진 구성에서 ‘프로야구 현역 감독’ 안을 철회하고 ‘프로야구 전직 감독, 현역 코치’로 양보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야구대표팀이 꾸러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감독은 “당초 내정된 6명이 코치로 참여하지 않으면 말지 않을 생각도 했지만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표팀을 맡아 달라고 요청해 마음을 바꿨다.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내달 1일 KBO 기술위원회의 합의 의의를 열고, WBC에 출전할 1차 엔트리 45명을 결정할 뒤 연말까지 최종 엔트리 28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8개 구단이 이미 이사회와 단장 회의 등을 통해 선수 차출에 100% 협조를 약속한 만큼 최강팀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 등을 지켜볼 때 공격은 제1회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투수력은 튼튼한 편이다”고 말했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 등을 지켜볼 때 공격은 제1회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투수력은 튼튼한 편이다”고 말했다.

내년 2월15일 미국 하와이에서 2주간 합동훈련을 갖는 대표팀은 같은 달 28일 아시아지역 예선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훈련을 시작하며, 3월6일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일본은 지난 12일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자이언츠 감독 등 코치진 구성을 끝낸 뒤 메이저리거가 대거 포함된 대표선수 예비명단까지 발표한 상태고, 대만도 지난 3일 2006년 도하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예스시엔 감독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대표팀을 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김연경 여자 첫 2전 득점 돌파 2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흥국생명 GS칼텍스의 경기에서 여자선수 사상 첫 2전 득점을 돌파한 흥국생명 김연경(왼쪽)이 블로킹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흥국생명이 3-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불황 여파...체육계까지

## FIFA 월드컵 관중감소 걱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다.

호르스트 슈미트 FIFA 남아공월드컵 고문은 25일(한국시간) “축구팬들이 예상만큼 남아공까지 나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회기간 추산되는 남아공 방문객 수는 오락가락이다. 당개는 90만명에서 적게는 30만명이다. 남아공 정부는 대략 45만명 가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슈미트의 우려에 반해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역시 FIFA 고문을 맡고 있는 대니 조단은 “스위프트도 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규모 시청자를 지닌 팀들이 있어 상황은 희망적”이라고 했다.

제롬 발레 FIFA 사무총장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18개월 전에 벌어졌다면 문제가 심각했을 것이다. 운 좋게도 현재 월드컵 준비를 위한 대부분 작업이 모두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했다.

## GM 파산 위기...배구계 비상

한국 프로배구가 GM 등 미국 글지 기업을 버양 끝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를 바라보며 남모름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특징은 실물에서 앞서 금융부문이 먼저 흔들리라는 점이다. 특히 배구계가 최근 경제위기에 민감해진 것은 남자프로배구 우리캐피탈과도 관련이 있다.

문제는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이 팀이 하필이면 파산 위기에 처한 GM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모기업 우리캐피탈은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의 할부금융사 격이고, 대우자판은 자동차 매출의 상당 부분을 GM대우가 생산하는 소형차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판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하루 늦게 갚으면서 배구계도 덩달아 긴장했다. 또 우리캐피탈이 서울 연고권을 사는데 필요한 10억원 을 연말까지 낼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캐피탈이나 KOVO에선 “걱정할 것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자동차 외에도 건설 매출이 17%나 되고, 상용차는 GM대우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 GM, 우즈와 광고계약 중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는 24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의 광고 및 후원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하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타이거 우즈는 GM의 뷰익 브랜드 제품과 지난 9년간 광고 계약을 맺어 왔으며 2009년까지도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GM 대변인이 말했다. /연합뉴스

# 두산 이해천 日 야쿠르트행

### 2년간 최대 400만달러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한다. 이해천은 27일 오후 3시 도쿄 미나토구 심사부 야쿠르트 구단 사무실에서 공식 입단식을 치르고 일본 팬들에게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

이해천은 프로야구 두산 베이스에서 달았던 등번호 59번 대신 49번을 달고 새 출발을 한다. 야쿠르트와 2년간 계약한 이해천은 최대 400만달러를 받는다.

이해천의 에이전트인 박유현씨는 25일 “2년간 연봉으로 각각 80만달러, 계약금 100만달러 등 보장된 액수만 260만달러다. 투구 이닝, 승리 등과 관련된 옵션이



140만 달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3년간 최대 500만달러에 야쿠르트 유니폼을 입은 임창용(32)보다도 좋은 조건이다. 임창용은 올해 30만 달러, 2009년 연봉으로 50만달러를 받고 2010년께는 2년간 성적 여하에 따라 구단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약했다. 결국 보장된 금액은 8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프로야구 사상 세 번째로 데뷔 첫해에만 70만~80만달러를 손에 쥐었다. /연합뉴스

# 이형택 세계 랭킹 118위

### 지난주보다 16계단 올라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시나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16계단 오른 118위가 됐다.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게이오챌린저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랭킹 포인트 55점을 보낸 이형택은 24일 수순에서 134위에서 118위로 경쟁 뛰어올랐다.

이형택은 24일부터 일본 도요타에서 시작된 챌린저대회인 던롭월드챌린저에 2번 시드를 받고 출전해 2주 연속 정상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대표:성봉규** (영원동북로16-07-29)

- 전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전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차장
- 전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차장
- 전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차장
- 전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부 차장

**부동산** (영원동북로16-07-29)

☎(062)225-7400

##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역 인터시티나도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평가 70%이하**

- ◆ 금남로 나지 237 건물 1462 공시 7422 원 6년 밀부
- ◆ 공신 406사(사)빌 63년 도로변 대지256건
- ◆ 남산동 200평 공사기 922원 대지594원
- ◆ 백운동 토지 1모빌과 단란주점 대지81건
- ◆ 대안동 광운대학교 빌 115평 4층 건물
- ◆ 우산동 건물등 4층 99평 대지 497500 원
- ◆ 신안동 4층 도로변 상업지 93평 공사기 3억
- ◆ 남구 송파동 2층 빌딩 28200원
- ◆ 서동 대지 467㎡(141전) 건물 170 발전기 7억
- ◆ 황동 대지 84건 287 여권 30만 2억 8천 원
- ◆ 박운동 위락도로 대지 162 건물 229 병영 시육 등

## 월빙공인중개사

양산택지지구내 GS자이1차 단지내상가 ☎ 062)575-8389 ☎ 010-4667-7749

**임대신속·맞춤형 임대료**

- ◆ 양산택지지구내 4차선 도로 옆 자이아파트 등산로 입구
- ◆ 1층:165㎡(75평), 178㎡(75.4평)
- ◆ 2층:178㎡(75.4평), 285㎡(78.8평)

##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용5억6천만/보2억
- ◆ 3천 월795만원/매가12억7천만

##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3-1140, 5211 ☎011-60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